

‘신기술, 신문화를 창조하는’



“기술보국”, “품질보국”을 실현하고 있는 (주)보국전자는 생활전반에 필요한 소형가전을 선보이며 웰빙시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에 일조를 하고 있다. 국내 소형가전 장수 브랜드로서 가정용 전열기기와 소형가전을 전문 생산, 공급해온 기업으로 브랜드 네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기요와 전기장판은 할인점, 백화점, 양판점, 재래시장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꼼꼼하고 실속있는 제품이라는 소비자의 평가에 걸맞게 이 회사의 전기요, 전기장판은 단순 가정용 난방기기로 인식되던 시절부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웰빙이 지금처럼 확고한 소비패턴으로 인식되기 전부터 친환경, 친건강 개념을 도입하여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에서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제품인만큼 건강에 유익한 소재를 첨가하겠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져 항균력이 뛰어난 은나노, 자연소재의 녹차비타민, 천연항토 염색 등을 잇달아 출시하게 되었고, 제품선택에 있어서 까다로운 주

부들에게까지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매년 개발하고 품질 관리에 노력한 결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5년연속 “ 으뜸상품 ”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터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 6월에 이르러서는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대외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 천연숯항토매트

보국전자는 전기요, 전기장판에서 구축된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풍기, 가습기, 전기히터류 등 계절가전으로 품목을 늘려갈 뿐 아니라, 주방가전과 이미용가전으로

영역을 점차 넓혀감으로써 명실공히 소형가전 1위 업체를 목표로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뛰고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력은 소비자들의 구진을 통해 해외로도 퍼져 세계 곳곳의 교포나 현지인에게서 대량 구입문의가 들어오고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 경영전략 >

잘 구축되어 있는 유통 채널을 심분활용하기 위하여, 계절가전의 한계를 벗어나서 연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또는 도입하여 소형가전 전문메이커로 우뚝 서고자 한다.

< 제품군 변천사 >

전기요, 전기장판 → 전기매트, 전기방석 추가 → 선풍기 추가 → 전기히터 추가 → 가습기, 청소기, 다리미 등 생활가전류 추가 → 전기주전자, 전기믹서 등 주방가전류 추가 ⇒ **“종합 소형가전 전문 브랜드”**

< 판매전략 >

할인점, 백화점, 양판점, 재래시장과 같이 유통채널 별로 맞춤형 공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TV홈쇼핑과 같은 온라인에도 꾸준한 판매와 브랜드 노출로 판매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북미지역이나 러시아지역을 거래하던 기존의 수출지역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만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여 대만홈쇼핑에도 보국 전기요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지역과 이집트 이란 등 중동지역같이 새로운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문의가 오고 있어서 수출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보국전자는 전기요, 전기장판분야에서 국내에서의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전문수출기업으로의 도전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연일 갱신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계절나기가 한층 고달파질 전망이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나 석유히터와 같이 유지비가

많이 드는 냉난방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이용한 전기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중에서 소비전력이 높아 한달에 몇만원 상당의 전기료가 나오는 전기히터류보다는 난방효율도 뛰어나면서 전기료 부담이 적은 전기요, 전기장판 등이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벼워진 주머니만큼이나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쓸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원할 것이고 이왕이면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까지 가미된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보다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비전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 살균 UV가습기